

젊은 축산! 후계자 육성으로 (2)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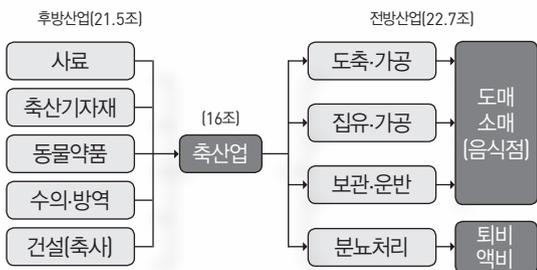
2. 한국 축산업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2.1. 한국 축산업의 필요성

2.1.1. 농촌경제 핵심 성장산업

○국내 축산업의 생산액은 18.7조 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규모는 60.2조 원으로 농민 소득과 농촌경제에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에는 농업생산액의 45%,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산업 전후방효과 추정액



자료: 지인배 외(2012),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2. 국민 건강증진과 식량안보

○축산물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국민체력강화, 신장개선, 신체지수 개선, 수명

연장 등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류사학적 측면에서도 인간이 선호하는 식품이다.

- 고기 섭취량이 적었던 중세시대 성인 남성의 신장(평균 169.5cm)은 수렵과 육식이 주식이었던 3만 년 전 크로마뇽인(평균 175cm)보다 체격이 작음(Komloset al., 2003, 최운재, 현대축산과 인간, 2015 국민축산포럼, 2015. 4. 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국민은 쌀보다 축산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어, 식량안보측면에서 비축해두어야 할 식품으로 축산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축산물(육류 45.6kg + 계란 12.7kg + 우유 72.4kg) > 쌀 67kg

○식량안보측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 식량 공급을 위한 축산물 자급률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지급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 농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비교

구분	1970년 (kg)	2013년 (kg)	'70~'13년 증감(kg)	2013/1970(배)	
양곡	쌀	136.4	65.1	-71.3	0.48
	보리쌀	37.3	1.3	-36.0	0.03
	밀	26.1	32.3	6.2	1.24
	콩	5.3	8.0	2.7	1.51

	서류	10.2	3.1	-7.1	0.30
	채소류	59.9	170.0	110.1	2.84
	과실류	10.0	63.2	53.2	6.32
축산	쇠고기	1.2	10.8	9.6	9.00
	돼지고기	2.6	22.2	19.6	8.54
	닭고기	1.4	12.6	11.2	9.00
	계란	3.8	12.7	8.9	3.34
	우유	1.6	72.4	70.8	45.25
수산물		25.7	53.8	28.1	2.09

주: 양곡 중 쌀과 축산물은 2014년 수치, 수산물은 어패류 + 해조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축산 자급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축산유류	90	84.6	78.8	74.5	72.6	61.2	70.3	72.8
쇠고기	53.6	51.4	52.8	48.1	43.2	42.8	48.2	50.1
돼지고기	99.5	94.5	86.4	80.7	80.9	61.2	77.1	81.3
닭고기	100	97.9	79.9	83.6	79.7	76.9	77.4	78.2
우유	93.2	93.2	80.4	73.6	65.4	53.8	62.8	6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내부자료)

2.1.3.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축산업은 토양의 비옥도 향상,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유기질 천연비료 생산을 통한 토양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순환 농업과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의 중심산업이다.

○우리나라 논은 61%, 밭의 54%가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이며, 유효인산 함량도 논은 47%, 밭은 25%가 적정수준보다 미달된 상태이다. 따

라서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를 양분이 부족한 토양에 환원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을 대체한다면 비용절감과 아울러 토양 미생물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다.

○또한 축산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풀 조사료를 이용하여 고가의 고급단백질 생산이 가능하며,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경관과 문화 보전에 필요한 산업이다.

2.1.4. 국민 삶의 질 향상

○동물과 인간의 공존은 최초 <야생동물>에서 <야생동물, 경제동물(가축)>로, 이후 <야생동물, 경제동물, 애완동물>로 현재는 <야생동물, 경제동물, 반려동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은 단순히 경제동물로서의 가치 외에도 인간이 함께 서로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인 재활과 회복 및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경주마, 닭싸움, 투우, 투견 등 여가 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축 분뇨를 연료 또는 바이오가스로 이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한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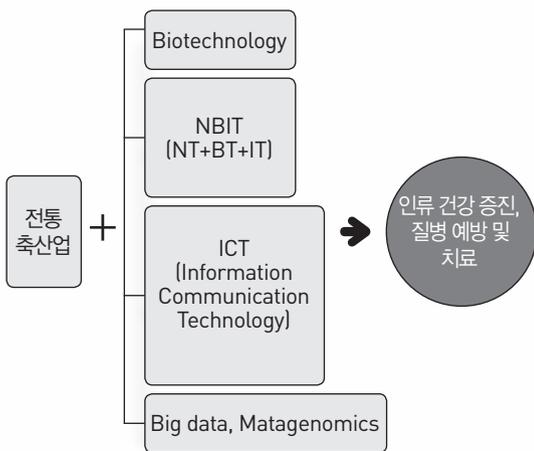
2.1.5. 차세대 성장동력

○신학문(생명공학, NBTI 등 융합학문, Big data, ICT 기술 등)과의 접목을 통한 미래동력 산업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산업(Blue

Ocean)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사료, 사료 첨가제, 백신개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장과 육질조절, 유생산과 유성분 조절, 난생산과 난 성분 조절은 물론 각종 기능성 축산물 생산, 동물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차세대 핵심동력산업으로서의 축산업 역할



2.1.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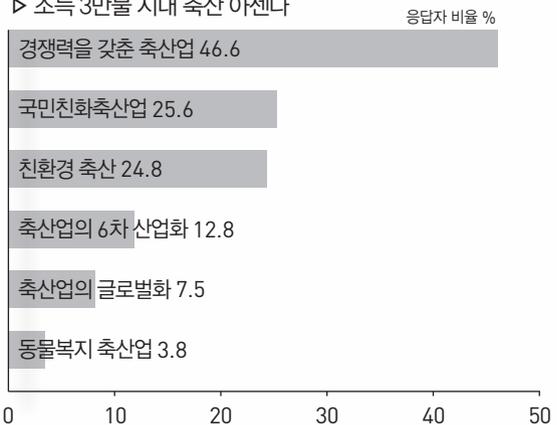
○최근 한우 홍콩수출에서 보듯 축산업은 수출농업분야의 주요 수출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관광+문화+첨단+외식+유통 등이 결합된 미래 신성장동력인 6차 산업으로 발전하여 농촌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선진화된 축산기법이 절실히 필요한 북한에 남북한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2. 한국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2015)의 소득 3만불시대 축산정책방향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본격적인 FTA시대와 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3대 아젠다로 ①경쟁력을 갖춘 축산업(46.6%), ②국민친화 축산업(25.6%), ③친환경 축산업(24.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 3만불 시대 축산 아젠다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2015). 「소득 3만불 시대, 축산정책 방향 설문조사」.

- 3대 아젠다별로 주요 하위 정책 설문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달성을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32.3%)과 '생산기반 강화'(25.8%) 정책이 중요하며, '국민친화 축산업'을 위해서는 '질병문제 해결'(43.8%)이,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악취 문제 해결'(66.7%)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위 정책에 필요한 우선과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통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①위생 및 안전

▷ 축산 아젠다별 중요한 축산정책

구분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국민친화 축산업	친환경 축산
1순위	유통구조 개선 (32.3)	질병문제 해결 (43.8)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 해결 (66.7)
2순위	생산기반 강화 (25.8)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 해결 (37.5)	유통구조 개선 (24.2)
3순위	- 수급 및 가격안정 - 가축분뇨 문제 해결 (24.2)	유통구조 개선 (34.4)	생산기반 강화 (21.2%)

()내 수치는 응답자 수 비율, 복수응답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2015) 「소득 3만불 시대, 축산정책 방향 설문조사」

성 제고(63.5%), ②유통비용 절감(63.5%), ③소비자에게 올바른 축산물 정보 제공(62.8%) 순

- 생산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①경영안정 도모(64.5%), ②생산비 절감(55.1%), ③후계농 육성 (50.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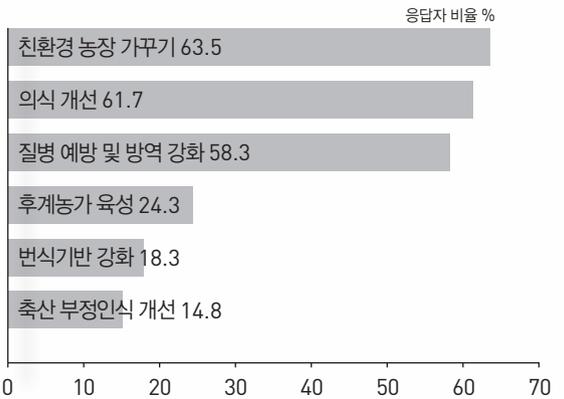
- 질병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①농가의식 개선(59.9%), ②사육환경의 친환경화(47.4%), ③축사시설 현대화(45.3%) 순

- 가축분뇨 및 악취 해결 관련해서는 ①자원화 시설 확대(72.3%), ②농가의식 개선(59.1%), ③적정 사육두수 유도(46.7%) 순

- 수급 및 가격안정 관련해서는 ①소비촉진 (57.7%), ②가격안정제 도입(57.7%), ③적정 사육두수 유도(56.9%) 순

○기타 선진축산 아젠다를 위한 축산인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서는 ‘친환경 농장 가꾸기’ (63.5%), ‘의식개선’(61.7%), ‘질병 예방 및 방역 강화’(58.3%)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선진 축산 아젠다 실현을 위한 축산인의 역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2015) 「소득 3만불 시대, 축산정책 방향 설문조사」

○최근(15. 12. 16)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자조금연합에서 <국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한 축산인들의 노력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①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②국민친화 축산업, ③친환경 축산업이라는 방향 설정과 더불어 축산인 스스로의 노력도 매우 필요함을 설문조사와 행동강령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 방향이 아무리 잘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산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 있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젊은 축산 후계농육성이 우리나라 축산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안티축산 확산은 축산업이 노쇠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젊고 유능한 축산 후계인력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

하다.

○젊은이를 축산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경험, 초기진입자금 등이다. 축산업은 특히 초기 진입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며, 교육체계 확립과 교육받는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 해결 등도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에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 유입과 일정 수 이상의 농가 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젊고 건실한 가족농 중심의 중소전업농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우 번식농가는 품목의 특성상 큰 규모로 사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전업농 정책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소규모 농가 보호정책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지나친 독과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칠레 양돈산업과 같이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시장 구조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다수의 협동조합이 함께 경쟁하는 시장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 칠레의 경우, 칠레 돼지고기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회사인 아그로수퍼사에서 2005년 최대 사육마릿수 15만 마리(모든 기준) 규모의 번식 모돈 시설을 칠레 북부 후아스코(Huasco)지역에 설치하였으나, 2012년 5월 악취로 인근 주민이 양돈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봉쇄하여, 사육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칠레 환경성이 사육 가능한 어미 머릿수를 8만 마리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아그로수퍼사는 2013년 2월 후아스코 지역 양돈장을 전면 폐쇄하였다.

- 덴마크 양돈산업을 대표하는 데니쉬크라운은 칠레와 반대의 사례로, 유럽 10대 협동조합 중에서 덴마크의 협동조합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데니쉬크라운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독과점문제가 부각된 경우는 거의 없다.

- 우리나라는 양돈산업의 경우 계열화율은 25% 수준에 그치지만, 협동조합 계열주체인 도드람양돈농협, 대충양돈농협, 부경양돈조합, 농협목우촌 등 유명한 조합계열주체가 활동하고 있고, 민간 주체로는 H그룹의 선진축산, 대상팜스코 등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경우 민간계열 주체의 시장점유율과 협동조합계열주체의 시장점유율이 대략 50:50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 독과점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축산선진국 후계농 육성제도

3.1. 일본

○일본정부는 신규취업자를 취농 전, 취농 개시, 경영확립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별 취농뿐만 아니라 농업관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 취농 전 연수에 대한 지원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준비형)은 농업대학 등의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 농가·농업법인에서 연수를 받을 시 연수 기간 내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년 동안 연 150만 엔을 지원받게 된다.

나. 취농개시, 경영확립을 위한 지원

○신규 취업 영농인의 취농 개시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취농개시형), 신규 취업 영농인을 위한 무이자자금 제도, 경영단체육성 지원사업, 고용 취농에 대한 지원(신규취농·경영승계종합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취농개시형)은 취농 직후(5년 이내)소득을 확보하는 급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년 소득에 따라 급부 금액이 변동되며 연 최대 15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 신규 취업 영농인을 위한 무이자자금 제도는 신규 취농 영농인을 대상으로 취농에 필요한 기계 시설의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3,7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 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농기계나 시설 등의 구입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일본의 신규 취농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

	취농준비 (고교 졸업 후 를 지원)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 정직원으 로 취농	독립자영 취 농	
소득 확보	청년취농 지원(급부)금 (준비형) 연수기간 중에 대해 연간 150만엔을 최장 2년간 지원	법인측에 대해 농의 고용사업 •법인 취직 청년 연수 경비 연간 최대 120만 엔 최장 2년 간 지원 •법인에 연 수에 필요 한 경비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대 4년간 지원(3년 째 이후는 최대 60만엔)	청년취농 지원 (급부)금 인정신규 취농자에 연간 최대 150만엔을 최대 5년간 지원	농업법인 등의 차세대 경영자 육성 (농의 고용 사업)법인 등의 직원 파견연수 경비로 월 최대 10만엔 을 최장 2년간 지원 톱 프로를 지향하는 경영자 육성을 위한 지원
기술· 경영력 습득	농업경영자 육성교육의 레벨업을 위한 지원 (조성) 고도의 농업경 영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지원			
기계· 시설의 도입			청년등 취농자금 (무이자)	슈퍼 L 자금
			경영체육성지원사업	
농지 확보, 취농 상담 등	시정촌과 순 조로운 상담 •농지이용의 계획 수립. •사전준비 를 지원		농지 중간 관리기구에 의한 지원 지역연계 추진원에 의한 지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

- 고용 취농에 대한 지원(신규취농·경영승계종합지원 사업)은 법인이 새롭게 청년을 고용하고 실시하는 연수 등에 대해 지원(연간 최대 120만 엔, 최장 2년)하는 것이며, 또한 장래 독립하거나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지원(최장 4년간 연간 최대 120만 엔(3, 4년은 60만 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 등 취업영농계획제도, 농업경영승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등 취업영농계획제도는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청년 등의 취업영농계획을 시·정·촌이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농업경영승계 사업은 후계자 없는 우량 농가와 신규 취농 희망자를 매칭시켜 승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 농촌지도조직의 농업교육 및 지원

○일본의 협동농업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함)은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의 제정에 기초한 제도의 발족 이후, 가장 기본적인 농정의 추진 전략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보급지도센터에서의 농업교육은 현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농업체험학습 지원, 신규 취농자(농고, 농대 졸업생, 일반사회인)의 취농계획 수립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2. 유럽연합(EU)

가. 신규취농자 지원제도

○신규 취농자 지원제도는 농업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취농자에게 보조금 또는 대출형

태로 최대 5만 5,000유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Early Retirement Scheme)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은 젊은 농업인 또는 신규 취농자에게 은퇴 예정 농업인의 농장을 인수하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기은퇴한 영농자에게 평균 은퇴연령까지 연간 1만 8,000유로를, 농장근로자에게는 4,000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다.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금은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4~2020년 기간 동안 시행될 공동농업정책에서 18~40세 이하 젊은 신규 취농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40세 이하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의 가공, 농산품이 질 개선 등에 직접지불금 사용이 가능하다. 단, 토지나 동물과 같은 자산(asset)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 교육 및 훈련 바우처(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교육 및 훈련 바우처는 생산, 식품위생 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포함한 자문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해외 교육연수도 지원된다.

3.3. 미국

가. 신규 취농 지원

○취농 지원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의 내용은 재배기술 지원, 작물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으로 다방면에 걸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 위기관리 교육

○지역별 거점 위기관리교육센터를 지정하고 농가에 체계적인 위기관리 교육 리더십과 농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교육은 생산 위기관리, 마케팅 위기관리, 재정 위기관리, 법률 위기관리, 인적자원 위기관리 등 크게 다섯 영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다. 신규농개인개발계좌(The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Individual Develop-

ment Account (BFRIDA)

○신규농 개인개발계좌는 개별 농가가 3,000불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이에 두 배에 해당하는 6,000불까지를 매칭으로 지원받아 총 9,000불의 영농 자금 사용이 가능하다.

라. 농장연계 프로그램(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

○농장연계 프로그램은 젊은 농업인들이 신규로 취농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은퇴하는 농장을 신규 농업인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 신규 농업인에 대한 우선 농지 판매(Sales of Inventory Farmland)

○미국의 농가지원청(FSA: Farm Service Agency)은 자신이 확보한 농지를 획득 15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공지하며, 신규 농업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농지에 대한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

